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uly 26 2024 Vol. 924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20일(토) 오전 10시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말씀은 하늘도, 땅도 아닌 내 곁에"

다음세대를 세우는 성경필사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해에 이어 '다음세대를 세우는 성경필사' 장학생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본지가 주관하는 제2기 성경 필사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20일(토) 오전 10시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성경필사 운동을 해온 이홍주 장로(GEM TECH DIAMOND 대표)가 참석해 제2기 성경 필사 학생들에게 이번 기간을 인내하며 보내라고 격려했다.

그는 "필사하는 동안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다. 성경 필사가 궤도에 이르면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9~11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해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이번 필사를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1기 성경 필사 장학생으로 간증한 배선길 학생은 "하나님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내려가지도 않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성경필사를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였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폴김 목사(BTS 솔라 대표)는 축사에서 "말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보고 쓰면 효과가 몇배 증가될 것"이라면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비에 말씀을 새겨 주셨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우리 마음의 돌비에 말씀을 새기게 하셨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은 "성경 필사는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 필사를 모두 끝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필사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성경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성경 필사 대회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이며 장학생들의 필사노트는 내년 1월 25일(토) 장학금 전달식 때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성경 필사에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만 14세~23세)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감문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의 선물이 제공된다.

이날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가 사회를 보았으며 김창섭 목사의 마침기도가 있었다. 오는 8월 17일에 LA 다운타운 노보 극장(The Novo)에서 열리는 비와이 콘서트 티켓 추첨도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교명 변경, 생존을 위한 결단

"한인신학교 정체성 탈피하지 않고서는 미래 없다"

미주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대학이 있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데에는 오랜 고민과 절실함이 있었을 터.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미주 한인 신학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주장신의 새 이름이다.

미주장신은 7년 전 '선교적 신학교'라는 모토를 내걸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그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교명 변경은 한인신학교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다문화, 다민족을 향한 종합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다.

지난 16일(화) 기독일보 사무실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이사장 노영호 목사와 이상명 총장을 모시고 교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명 총장: 팬데믹 이전부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자체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교단의 배경이 있는 이름을 없애고, 일반적 이름으로 바꿨을 경우,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느냐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다.

토마스 맹 기자 ➔3면에서 계속

바이든 사퇴에 美 기독교계 반응

지난달 말 첫 TV 토론 이후 건강 문제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1)이 21일(현지시각) 11월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체 후보로 지지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바이든의 발표는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지닌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이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복음주의 활동가이자 작가인 마이클 웨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믿는 것을 실제로 명확히 하라고 권유한다. 그것을 방송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월에 바이든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고, 7월에 바이든이 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이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다음 일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4년 남가주교계연합
제79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 및 찬양제

■일시 : 2024년 8월 1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강사 : 송정명 목사(남가주교협고문)
■연락처 : 최영하 목사(총무 213-999-1923)
■공동주관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회협의회.OC전도회연합회

강사 : 송정명 목사 (남가주교협고문)

공동대회장 : 심상은 목사 (OC교협회장)

공동대회장 : 최영봉 목사 (남가주교협회장)

공동대회장 : 신 용 집사 (OC전도회연합회장)

■공동주최 : 남가주목사회.OC목사회.남가주여성목사회.OC여성목사회.남가주장로협의회.OC장로협의회.남가주원로목사회.남가주교협증경회.각지역교회협의회.미주성시화운동본부.기독실업인협회.세계기독교총연합회.한미기독교연합회.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JAMA.한기총미서부지회.LA총영사관.LA한인회.민주평통LA.국가원로회의.대한인국민회.광복회서부지회.미주한인재단.3.1여성동지회.한미동맹협의회.대한육군동지회.미주복음방송.(주간)사람과사회.크리스챤해럴드CHTV.크리스천위클리.KCMUSA.미주크리스챤신문.크리스챤투데이.CBS-TV.기독일보.세계복음신문.크리스천비젼.기독뉴스.한국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라디오코리아.우리방송.KBS.MBC.SBS.

■후원 : 한미은행.뱅크오브호프.오픈뱅크.서울메디칼그룹.샌터메디칼그룹.한미메디칼그룹.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삼호관광.아주관광.푸른투어.춘추여행사.H마켓.한남슈퍼.시온마켓.가주마켓.갤러리아마켓.K타운치과.KODYHVAC.우메켄.김스전기.김스피아노.ColorCom.Inc.한솔보험.코암미래재단.김용석한의원.용수산식당.올림픽골프.예스골프.플러튼약국.남가주사랑의병원.이조캐더링.오렌지호스피스.

■조직표(존칭생략.가나다순)

지도위원 : 강순영.강신권.강준민.고태형.김영길.김용준.김재연.노창수.류당렬.민경엽.민승기.민종기.박성근.박종대.박헌성.박효우.서정이.송정명.신승훈.신원규.윤성원.이영선.이종용.이호우.정시우.정완기.정해진.지용덕.진유철.최순길.최학량.최혁.한기형.한기홍.홍영환.

■공동준비위원장
샘신목사(남가주교협수석부회장)
이창남목사(OC교협수석부회장)

■음악감독
조준석목사(남가주교협음악부장)

■홍보부장
윤우경권사(OC전도회연합전회장)

■재무
권영신장로(남가주교협부회장)
김영수장로(OC장로협회이사장)

■사무총장
이원석목사(OC목사회장)
최영하목사(남가주교협총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도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디즈니랜드에서 보낸 장애인들의 특별한 하루

브라이언 아이리스 나 재단 후원
밀알 사랑의교실, ANC 장애인들
봉사자들 소중한 추억 만들어

7월 22일(월), 남가주밀알과 'Brian & Iris Na Foundation'의 후원으로 밀알 토요 사랑의교실과 ANC 온누리교회 GM에 소속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스탭 등 총 165 명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남가주 밀알 선교단

7월 22일(월), 남가주 밀알선교단과 'Brian & Iris Na Foundation'의 후원으로 밀알 토요 사랑의교실과 ANC 온누리교회 GM에 소속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스탭 등 총 165명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 중엔 아직 디즈니랜드에 가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인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10시 모든 참가자들이 디즈니랜드 정문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은 후 사랑의교실 브랜치별로 소그룹을 형성해 California Adventure, Fantasyland 등을 다니며 Disney Parade를 구경하고 놀이기구들을 타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스탭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장애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Brian & Iris Na Foundation'에서 기금을 후원했으며, 이 재단의 자제인 'Ellie Na' 자매는 'gofundme'를 개설해 펀드레이징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CBB, US Metro Bank, 한미은행 등 여러 개인과 단체가 후원했다.

남가주 밀알 선교단의 이준수 목사는 "남가주지역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디즈니랜드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 밀알 T: 562-229-0001
E: admin@milalsca.org I
www.milalsca.org

남가주교계연합 8.15 광복절 기념 음악회

8/10(토) 음악회 오후 3시
남가주 새누리교회

8.15 광복 79주년을 맞아 광복절 기념예배 및 찬양제가 오는 8월 10일(토) 오후 3시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린다.

남가주교협(회장 최영봉 목사)과 OC 교협(회장 심상은 목사)과 교계 단체들이 주관하는 이번 찬양제에는 테너 오위영 목사, 오정록, 소프라노 김희우, 이영주, 김석영, 바리톤 장상근, 경신 코랄(지휘 장진영), 에버그린 콰이어(지휘 노혜숙), 피아니스트 윤경미, 바이올리니스트 황예주 등이 함께 한다.

8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는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설교는 송정명 목사(남가주교협고문)가 맡았다.

주최측은 초대의 글에서 "8.15 광복절은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올해는 남가주 교협과 OC 교협과 교계 단체 기관들이 함께하여 범 교계 연합행사로 광복절 기념예배 및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한다.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행사를 여는 취지를 밝혔다.

김민선 기자

문의: 최영하 목사 (총무. 213-999-1923).
음악회: 8월 10일(토)
오후 3시, 남가주새누리 교회(975 Berendo St, LA, CA 90006)
기념예배: 8월 11일(주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센터메디컬 무료 일일관광 혜택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이번 7월 가입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입환자의 짝꿍과 가족 무료 관광을 7월 30일(화)과 7월 31일(수) 양일에 거쳐 진행된다.

OC지역 출발은 7월 30일 화요일 미션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와 LA 지역 출발은 7월 31일 수요일 게티빌라를 관광하게 된다.

이 무료 일일관광은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대주는 관광 혜택이다. 관광버스 대절과 가이드, 아침 식사와 점심의 뷔페 식사까지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10주년을 맞아 가입환자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누리는 이번 무료 관광 혜택을 예약한 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가입환자들은 가족혜택을 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 무료 관광은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만 가능하며 가입환자가 친구나 가족을 짝꿍으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혜택이다.

7월 30일(화) OC출발은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이며 7월 31일(수) LA출발도 예약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디 한 기자

문의 및 예약: (888)847-3098

바이든, "해리스 승계 전폭 지지"

➔ 1면 기사 〈바이든 사퇴...〉에 이어서

남침례신학교 총장이자 팟캐스트 '더 브리핑' 진행자인 알버트 몰러 주니어(Albert Mohler Jr.)는 한 에피소드에서 바이든의 발표에 대해 "어제 나온 발표는 갑작스러웠고, 행정부 구성원들은 적어도 주일 오전까지 언론과 접촉해 대통령이 대선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은 매우 진보적인 추세, 진보주의적 이념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고 믿었고, 만약 카멀라 해리스가 다음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정치적 이념 측면에서 좌파로의 엄청난 도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 활동가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Poor People's Campaign)을 이끌고 있는 윌리엄 바버 2세(William Barber II)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버 2세 목사는 "대통령이 물러나면 부통령이 일어선다. 민주당이 빈곤, 저임금, 의료 서비스 접근성, 여성 및 투표권 문제를 해결하는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광범위한 유권자를 통합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2020년 예비선거에서 바이든/해리스에게 투표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물러날 때 개입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은 시행 중인 승계 계획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자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다는 불평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전 아칸소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이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물러난다. 그가 여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후보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믿는다. 그가 어차피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뉴욕타임스의 복음주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프렌치는 오랫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지도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보았다. 트럼프는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의 정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후보를 찾을 때"라고 했다.

이어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된다면, 그녀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트럼프가 법과 질서에 더 낫다는 거짓말을 포함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퍼진 거짓말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기독일보 주최

세대통합목회 목회자세미나

주제 :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을 이루자 (신명기 6장 2절)

강사 : 김경윤 총장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김경윤 총장 집회
■ 8월 21일(수)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8월 25일(주일) 오전 11:45
주은혜교회 (담임 최호년 목사)
808 Foothill Blvd.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세미나 제목
1강 주님이 원하시는 삼대동일신앙 – 김경윤 총장
2강 삼대동일 신앙을 세우는 방법 – 김경윤 총장
3강 삼대동일 신앙의 실재 – 서인석 목사

■ 날 짜 : 2024년 8월 20일(화) 오전 10:00~2:00
■ 장 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등 록 : QR 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등록비 : 무료
■ 문 의 : 기독일보 213-434-1170
■ 후원단체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 여성목사회, OC 여성목사회,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록신청

강사 : 서인석 목사
철학박사(Ph. D.)
(전) 광주제일노회 노회장 역임
(현) 창조교회 담임목사
(현) 바이블동서남북 (대표 윤대명목사) 한국 부원장
(현) 광신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전임)
(현) CTS 방송 자문위원(목포)

서인석 목사 집회
LA 소망선교교회(김영호 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8월 23일(금) 오후 7:00
■ 8월 24일(토) 오전 11:00,오후 7:00
■ 8월 25일(주일) 오전 11:00

“한인 신학교 탈피하고 다문화·다민족 종합대학으로”

신학적 교육은 내부적으로 강화
외부적으로는 다문화 · 다민족 유입에 초점

➔1면 기사〈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에 이어서

미국 신학교가 목회학 석사 과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백인 학생들의 목회학 석사 과정 입학률은 상당히 낮고 목회학 분야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둡다. ATS도 M Div과정을 닫을 것인가, 이중 전공(M Div + 코칭, M Div+ 경영학)으로 변형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목회학 과정은 지난 10년 사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 학교 학생의 40~50%는 M. Div. 과정 학생들인데 M. Div. 과정은 교단 중심적 신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문화 다민족 과정의 학교로 트랜스퍼할 계획이다. 타교단 배경의 학생들은 장로교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 이름을 덜어내기로 했다.

두 번째는, 이슬람, 사회주의에서 사역을 할 경우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학교 교명 자체가 학교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내게 되었다.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는데 이 안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분간 미주장신과 바뀐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할 것이다. 신학적 교육은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바깥으로 다문화 다민족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중립적 이름으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이사장 노영호 목사(좌)와 총장 이상명 박사(우)는 한인 교단 신학교라는 정체성을 덜어내고 다민족, 다문화 종합대학으로 학교를 혁신하는 것이 학교의 장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기독일보

학교 교육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이상명 총장: 한인 신학교로 존속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봄학기부터 중국어 과정을 신설했고, 중국어 신학 학사과정, 선교학 석사과정을 가을학기에 추가할 예정이다.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영어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신설했다. 우리 학교가 다문화 다민족 배경의 학교로 발돋움하면서 백인 학생 뿐 아니라,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타민족 학생들도 유입해 한인교회 뿐 아니고 미국 교회에도 파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Inc.)에서 받은 그랜트를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팬데믹 기관 동안 온오프라인에 블렌디드 수업을 셋업했다. 블렌디드 방식의 수업은 온라인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현장성을 제공하며, 온라인 수업 학생들과 오프라인 수업 학생들 사이의 실시간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장점이 있다.

노영호 이사장: 결국에는 학교가 신학교로만 계속 해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학과를 늘려 가면서 종합대학으로 방향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신학교는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겠지만 종합 대학으로 가기 위해 학교 이름을 바꿨다. 예를 들면, 바이올라 대학 안에 탈봇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프레스티지 대학 안에 신학교를 두고 확장해 나가려 한다.

이상명 총장: 최근에 변경된 교명,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아래 하부 학교(sub-schools)를 두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하부 학교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한다.

학과를 늘리면, 신학적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명 총장: 미국 신학교는 교단의 정체성 유지 실패했던 것은 교단과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일도 하버드도 신학 교육기관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그러다가 서서히 교단과 분리되었다. 신학 과정과 비신학과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신학과정을 교단 소속으로 강화해 나가면서도 여러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유치해, 기독교 유산의 학교 안에서 영향을 받게 하는 것도 간접 선교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학생 유치도 안 되는데 학교를 유지할 때, 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 가라는 근본적 문제가 야기된다. 학교를 그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탈종교화 시대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

노영호 이사장: 교단에서도,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대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학생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명 총장: 이전에는 한국 유학생 중심으로 큰 교회 목회자를 뽑았다.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가 급감했다. 앞으로는 미국의 문화와 생태환경 속에서 신학공부한 사람이 앞으로는 한인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고 자녀 세대가 선교 대상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선교 지향적 교육에 기반해 여러 다양한 민족 배경으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교는 단명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 발전 모델을 생각한다면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고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

KPCA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노영호 목사: KPCA교단은 해외한인 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이다. 저희 교단에는 19개 노회가 있다. 캐나다,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여러 노회가 같이 있고 개혁주의,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장로교 정신을 지켜나가는 보수적이면서도 선교적인 교단이다.

신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대착이 필요할까요?

이상명 총장: 신학교가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신학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웃 신학교끼리 합병하는 사태도 일어날 것이다. 학생 유지가 안 되면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전 단계가 이웃 신학교끼리 합병하는 것이다. 합병은 한 학교 사이즈 만큼의 교원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교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한인신학교를 빨리 탈피하려 한다.

7년전부터 선교지향적 신학교육기관으로 가야한다고 외쳤던 것도 한인신학교 끼리 경쟁하는 것은 레드오션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지향적 입장에서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학생으로 유치해서 사역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목회자로 키워내는 것이 블루오션 개념에 가깝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심각한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난민들, 이민자가 폭주하고 있어서 중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역할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중국어 과정을 봄학기에 시작했다.

노영호 이사장: 중국어 과정을 시작했는데, 제가 나온 토론토 틴데일 신학교(Tyndale University)도 중국어 학부를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되었다. 지금은 중국어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 유지가 안 될 정도이다. 중국어 뿐 아니라 스패니시 과정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프라임 리더십 인스트튜트를 발족하셨습니다.

이상명 총장: 시니어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교회 내 시니어 인구의 교육 훈련을 통한 (재)사역자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교회 안 각 영역의 전문성을 지닌 시니어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교육 훈련 과정은 현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교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제휴하여 설립한 Prime Leadership Institute(이하 ‘PLI’)와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 교육대학원이 지난 6 월 27 일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PLI’는 (1) 시니어의 재사역자화를 위한 교육 훈련 전문 과정(커리큘럼) 수립; (2) 시니어 교육 훈련 강사 양성; (3) 시니어 교육 훈련 교재 개발 등을 통해 미주 지역 교회에 시니어 전문 교육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연혁

미주 한인 사회 및 교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은 1977년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 초대학장 김성락 박사, 2대 학장 김계용 목사, 3대 학장 박희민 목사, 4대 학장 서정운 박사, 5대 학장 김인수 박사를 거쳐, 2011년 2월 24일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2012년 9월 이상명 박사가 6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양질의 신학 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이중언어교육을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 종교, 교육 및 공동체 개발분야를 지원하는 박애주의적 후원기관인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Inc.)으로부터 99만 9,198달러의 그랜트를 수상했다.

샬롬센터 대표 이지락 소장

“고난과 시련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기독일보에서 최근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 샬롬센터 대표 이지락 소장이 출연해 그의 신앙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1997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삶을 비관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기독일보

한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고 센터 시작
어머니의 부재가 하나님께 가깝게 된 접촉점
스포츠, 예배, 공부할 수 있는 ‘킹덤 하우스’ 건설이 꿈
한달 수익 5천 달러, 다운페이 1만 달러 정도면 주택 구입 가능

기독일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 샬롬센터 대표 이지락 소장(visionlife.church 장로)이 참여해 은혜를 전했다.

이지락 소장은 엘에이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지락 장로는 “1997년도에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비관하고 자살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원인을 보니 대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리서치하고 정부와 관계를 가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재정적인 것을 교육하고 제공할 수 있는 단체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교회를 구입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토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은가 싶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로는 “어렸을 때는 미션스쿨에 다닌 것이 전부였고,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지만 절에 가면 그림들이 무서워서 불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 어렸을 때 품은 꿈이 미국에 와서 실현되고 펼쳐지기 시작했다”면서 “군대 3년 동안 주일에 교회에서 메세지를 듣고 위로를 받았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와서 매형과 누님이 순복음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담배를 하루 두갑씩 피우곤 했는데, 은혜를 받은 후 하나님께 ‘왜 이제야 나를 만나주셨습니까’라고 하소연도 했지만, 미국에 오고 교회로 인도되었을 때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들은 다 어머니가 계신데 나는 없다는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고 나의 삶을 혼자 개척해야 한다는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모든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약자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택과 관련된 도움을 나눌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밥만 먹으면 쓰러지고 숨을 못쉬는 과정에서 회복된 이야기와, 둘째 아이가 심장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은혜들을 나누면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회복된 아이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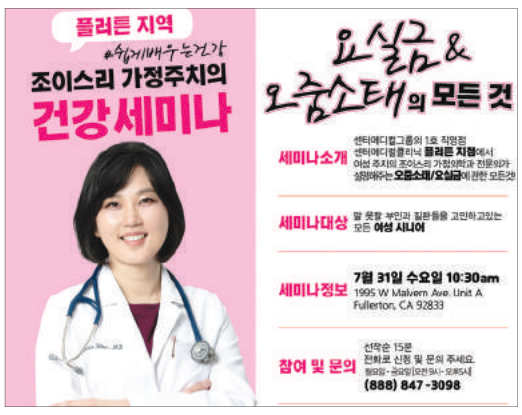
이 장로는 “201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때 집 차압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은 이들이 센터에 방문했다. 상황이 절실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간증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라면서 “대통령이 될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한인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킹덤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가 있고 예배도 드리고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시청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그는 “힘들 때는 힘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돈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데, 사실 재정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재정을 좀 저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집 구입과 관련해서는, “1달 수익이 5천 달러 정도에서 1년 수익 21만 달러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운페이로 1만 달러 정도의 재정만 있으면 집을 사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센터메디컬 그룹, 여성시니어를 위한 건강세미나



‘하루에 한 자리 수 환자 고품질 진료’를 모토로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적케어를 제공하는 센터메디컬클리닉 1호 직영점 조이스리 박사가 여성들을 위한 건강세미나를 진행한다.

조이스리 박사는 여성 주치의로 어머님들이 고민과 질환을 꼼꼼히 살펴 드리고 자궁경부암, IV 떼라피와 요실금과 같은 부인과 질환 인모드 시술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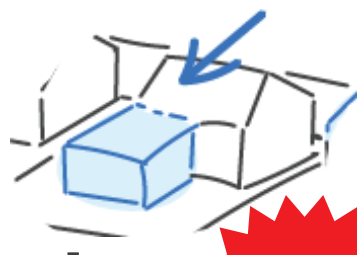
이번 건강세미나 역시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요실금&오줌소태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7월 31일 수요일에 열리게 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평소 말 못할 부인과 질환들을 고민하고 있는 모든 여성 시니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세미나 날짜 및 장소: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 지점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행사 및 혜택 문의: 888-847-3098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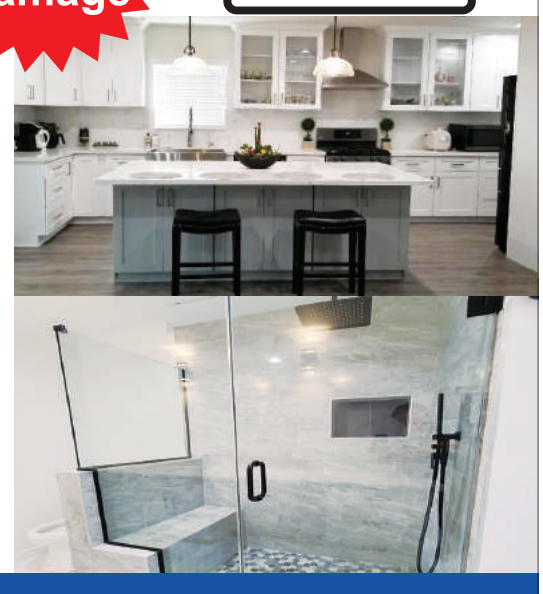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바른병원
Immigration Medical Exam
USCIS Civil Surgeon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주치의 임대순은
센터메디컬그룹과
동행합니다.

임대순 주치의
DAESOON LEEM, M.D.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니어 | 통증 | 스포츠 의학 전문의
전 USC 임상교수
전 메이저리그 야구 팀 주치의
현 강정호 야구교실 전담 주치의

시니어 & 만성질환 전문
고지혈증 | 고혈압 | 당뇨 | 폐 및 심혈관 질환

스포츠의학 & 통증 전문
무릎연골주사 | 자가혈청(PRP) | 줄기세포(Stem Cell)
고관절 통증 | 손/발가락 통증 | 손목/발목 통증 | 무릎/어깨 & 목/허리 통증

센터메디컬그룹
바른병원
문의전화 213 - 985 - 7777
3800 Wilshire Blvd, Unit 207A, LA, CA 90010

병원만다닐 걱정 끝!
한인 유일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센터메디컬그룹가입환자만의 특별한 혜택

집 → 병원
병원 → 집

01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혜택
02 믿음직한 한국인 기사
03 한국어 상담 가능

센터메디컬그룹

예약 문의 714-980-3532
예약제 운영 / 사전 전화 상담 필수
상담 가능 시간: 평일 8:30AM - 5:00PM
지역과 상황에 따라 라이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美 엘리베이션교회, 주일 출석 1만 7천 여 명으로 급증

2023년 연례 보고서 발표, 대면 예배 참석자 전년 대비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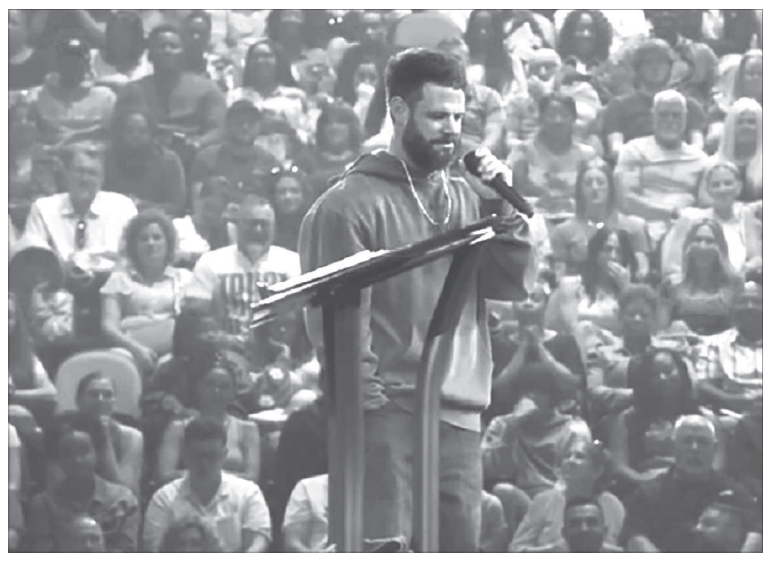
스티븐 퍼틱 목사가 이끄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엘리베이션 교회가 2023년 십일조와 헌금 등으로 1억 840만 달러(약 1,500억 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션교회는 3곳의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매주 예배 참석자도 1만 7천여 명으로 급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교회는 202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대면예배 참석자 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과 전 세계에서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이들도 수십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션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벨몬트와 플로리다주 올랜도, 캐나다 토론토에 캠퍼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션교회는 2021년 말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에 19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 중 8곳은 교회 소유로, 11곳은 임대로 알려졌다.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840만 달러(약 1,500억 원)가 모금됐는데, 십일조와 헌금은 9,728만 달러(약 1,346억 원), 연말 헌금은 1,112만 달러(약 154억 원)였다.

엘리베이션 지도자들은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끝을 맺는다. 연말 헌금 시즌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며 "십일조를 바친다면, 이것은 십일조 이상의 헌금이다. 아니면 이 시즌이 헌금을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스티브 퍼틱 목사. ⓒ엘리베이션 교회 예배 영상 캡쳐

감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모금액인 1억 462만 5,541달러(약 1,448억 원)보다 377만 4,459달러(약 52억 원) 더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엘리베이션 교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1,400만 달러(약 194억 원) 이상의 추가 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십일조와 헌금은 1,291만 8,224달러(약 179억 원), 연말 헌금은 134만 9,213달러(약 19억 원)였다.

2022년 감사를 실시한 FOARD 회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설립된 엘리베이션교회는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설립된 비영리 유한책임 자회사 두 곳을 운영 중이며, 'EC Property Corp'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CP는 "엘리베이션교회의 인기는 퍼틱 목사과 음악 사역 스태프들의 찬양을 제작하는 엘리베이션 워십 레코드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엘리베이션 워십은 2023년 모든 플랫폼에서 약 20억 회 이상 스트리밍됐고, 179,887명이 그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했다.한편 이 교회는 20년 이상 협력해 온 미국 남침례회에서 최근 탈퇴했다.

강혜진 기자

유대-기독교 사상 연구회 심포지엄, 8월 1일 개최

뉴욕 예시바대, 유대-기독교 학자 간 교류 이니셔티브 행사
아신대 김주헌 박사 주제발표, 예시바대 조셉 엔젤 박사 논평 및 토론

뉴욕 예시바대 유대-기독교 사상 연구회가 오는 8월 1일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1차 콜로키움 행사(2022년 11월)에 이어 21세기 한국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될 유대-기독교 사상과 관계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학술 모임이며,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줌) 행사로 진행한다.

일시: 2024년 8월 1일(목요일) 저녁 8시-9시 반

장소: Zoom
참여(무료)
참가신청: QR코드 혹은 이메일: hjm7474@gmail.com

이번 행사는 "복음서와 고대 유대 문헌과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기독학자와 유대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학술 연구주제를 발표 및 논평하는 시간을 통해 실제적인 유대-기독교 관계 도모의 건강한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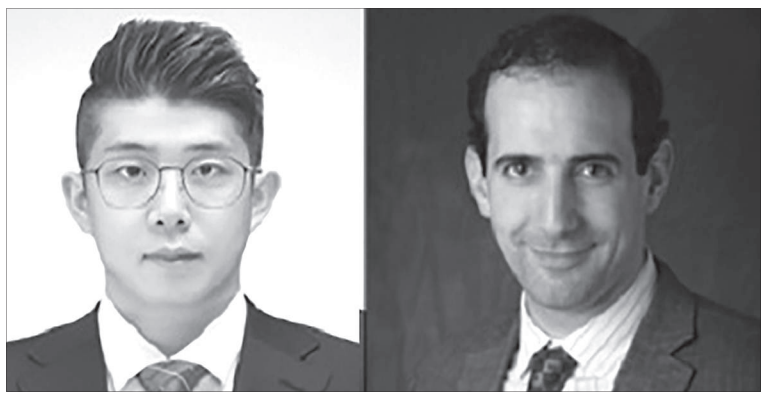
심포지엄 1부에서는 김주헌 박사(아신대 신약학)가 "심판의 보좌에 앉은 인자(人子): 에녹 전승과 정경 복음서의 연결 탐구"라는 연구주제로 발표하고, 조셉 L. 엔젤 박사(예시바대 유대역사학 및 성서학)가 이에 대한 논평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김주헌 박사는 "역사란 물결 위에서 기독교가 탄생했지만,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무지에서 기인한 반감이 특히 심한 것이 한국의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에서 유대교의 중요한 역할과 그 광범위했던 영향을 재평가하는 작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런 토대가 쌓인다면, 발제문에서도 다룰 것처럼 유대교와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무엇이 기독교다운 차별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런 학술 모임이 단편적 행사로 끝나기보다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고, 종국에는 가장 한국적인 사고에서 가장 세계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신대 신약학 교수인 김규섭 박사가 전체 진행 및 좌장을 맡고, 발표 및 논평 이후에 예시바대 유대학 분과 학장인 다니엘 라인홀드 교수 및 다우버 교수의 인사 및 축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한국 학생을 위한 유대학 인증/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 및 주관하는 예시바대 BRGS 학장인 다니엘 라인홀드 박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적 교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향후 21세기 한국교회와 신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예시바대 BRGS 유대학대학원은 인증(Pre-MA: Advanced Certificate)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석·박사 학위(M.A/Ph.D. in Jewish Studies)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한다.


왼쪽부터 김주헌 박사(아신대 신약학 강사, 영국 아버딘대, Ph.D)와 조셉 L. 엔젤 박사(예시바대 유대역사학, 성서학 교수).

과목 중 '히브리어', '유대-기독교 사상', '구약성경·탈무드' 등 4과목(12학점) 이수로 인증 학위를 마친 후 이어 추가 6과목(18학점)을 수강하면 2년 내(총 30학점)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예시바대 방문교수인 허정문 박사는 BRGS 유대학 석·박사학위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박사학위를 염두에 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즘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인문학생들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대학 인증(Pre-MA)·석사 프로그램 지원은 학위 소지자 이상,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누구나 가능하다. 영어실력이 필요한 경우, 학기 중 예비과정(히브리어 알파벳, ESL)을 병행하면서 학위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다. 교회 지도자 및 신학생들, 인문학 연구생들이 유대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원 및 장학금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서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강혜진 기자

뉴욕 예시바대 홈페이지
www.yu.edu/revel
리쉬마 아카데미 홈페이지
www.lishmah.co.kr
입학 상담 및 문의
dauber@yu.edu
jeongmun.heo@yu.edu

TV CHOSUN

朝鮮日報 창간 104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5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5주년 기념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Live in LA

NOW TICKET OPEN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창간 5주년 기념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50~$350

chosunticket.com

axs.com

$50 | $65 | $70 | $75 | $85 | $90 | $100 | $110 | $115 | $120 | $125 | $150 | $175 | $180 | $200 | $225 | $250 | $275 | $300 | $350

LIVE CONCERT 10월 13일 일요일 6 PM **미스트롯 3 LA 공연 예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삼호관광 LA점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한남체인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한남체인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윌셔점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올림픽점	(213) 388-1234	2717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태양 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석훈의 천종산삼-부에나파크점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도르가 서점-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베델교회 “제8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성료

주은재, 홍승민, 이강택, 조영천 웨스트민스터 대학 교수 초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7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3일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강택 목사(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조영천 목사(아틀란타 새교회) , 주은재 목사(필라델피아 목양교회), 홍승민 목사(브니엘 한인장로교회)를 초청해을 초청해 한여름의 신학강좌를 개최했다. ⓒ bkc.org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7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3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라는 주제로 주은재 목사(필라델피아 목양교회), 홍승민 목사(브니엘 한인장로교회), 이강택 목사(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조영천 목사(아틀란타 새교회)를 초청해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개최했다.

첫째 날 저녁 7시 30분에 이강택 목사와 조영천 목사가 각각 〈달란트 비유와 제자도〉, 〈잊혀진 제자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둘째 날 오전 6시에 주은재 목사가 〈사사기와 제자도: 단순한 순종〉, 오전 8시 10분에 홍승민 목사가 〈 누가복음의 제자도: 여기서 내일을 살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셋째 날 오전 7시 1부 예배부터 오후 2시 4부 예배 시간까지 주은재 목사, 홍승민 목사, 이강택 목사, 조영천 목사의 신학강좌가 진행됐다.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종의 관점에서 주인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부하직원을 통해 이익을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게으른(okneros) 종' 의 원뜻, 주저하고 망설여서 기대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The Great Commission이 The Great Omission으로 변질, 제자되 외에 잊혀진 것: 공동체 성화의 과정은 고립된 개인 아닌 공동체 안에서 가능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 오해가 있다”

〈달란트 비유와 제자도〉(마 25:14~30)라는 제목으로 첫 강좌를 이끈 이강택 목사는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 오해가 있다”며 이 오해를 바로 잡으며 제자도의 기본에 대해 강의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오늘의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림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그는 강의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달란트는 사람의 재능이나 역량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헬라어 ‘탈란톤’(talanton)는 화폐는 상당히 큰 화폐였다. 그 당시 남자 성인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로,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 밀리언이다. 20년 동안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결코 적게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오해는 ‘이 비유를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감당하자,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이 나누는 대화(24~27절)에 담겨 있다. 24절에,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24절)고 말한다.”

“굳은 사람이 뭘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들이는 것,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 이것이 굳은 사람의 의미이다. 종은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 한다고 판단했다. 종의 관점에 따르면, 주인은 고약한 사람이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은,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잘못 투자해서 그것이 큰 손실이 났을 경우 주인은 나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6절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등장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게으른’이 키인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번역을 시도해 보려 한다. 오늘의 말씀에서 게으른으로 번역된 헬라어 οκνηροs (okneros ; 오크네로스)는 어떤 이유에선가 주저하고 망설여서 기대된 행동을 행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는(hesitating) 종이라고 번역하고 싶다.”

이강택 목사는, “주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신에 대한 종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다”며 달란트의 비유를 대사명(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과 연결시켜 해석했다.

그는 “우리 주인은 종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분이 아니다. 종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근사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 바로 그 밑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한 방식으로 죽어야 했는가를, 나를 그 앞에 세워놓고 묵상해야 한다. 이게 제자도의 시작이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 그의 인식이 그의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고요 필수”라고 말씀을 정리했다.

첫 번째 이강택 교수 강의에 이어, Piano Quintet의 특송이 있은 후 조영천 목사가 두번째 강좌 〈잊혀진 제자도, 공동체〉(마 3:13~19)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The Great Omission), 앤드루 델반코(Andrew Delbanco)의 〈진짜 아메리칸 드림〉(The Real American Dream),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인용하며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것을 생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그의 책 제목을 의도적으로 지상명령에서 C를 빼 버리고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큰 것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제자의 삶이 빠져 있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그리스도 처럼 사는 삶을 뒷전에 내팽겨친 삶을 가리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 불렀다.”

그는 또한 제자도 외에, 교회 안에 잊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도 잊혀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 문화 속에서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다. 앤드루 델반코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에서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를 17~18세기에는 ‘**하나님**’, 19세기 ‘**국가**’, 지금은 ‘**나 자신(self)**' 이라고 분석한다. 제일 처음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시기에는 ‘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은, ‘세계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공동의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서 공동체를 향하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다. 죄를 죽이는 성화의 과정은 고립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박영돈 교수(고신대)를 인용해 성화에 있어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을 지녔음에도 복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될 수 있었으며, 야곱의 12 아들 역시 복잡한 뿌리가 뒤엉켜진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셨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충만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였다. 공동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충돌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기 시작하고 긴장이 생기기 시작한다.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이질 집단이 섞일 때 그 안에 갈등과 긴장이 새롭게 생긴다”고 서로 다른 문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는 교회 칼럼에서, “부흥회라면 모를까, 신학강좌라는 타이틀로 집회가 가능할까 하는 질문은 8년 전 신학강좌를 했을 때부터 있었던 질문이었다”며, “신학은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 주는 틀과 같다. 그 틀이 바로 서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힘은 신학에서 나온다”고 이 집회를 개최하는 의미에 대해 나누었다.

주디 한 기자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 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를 추천합니다.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이란 전도단체 CEO "온갖 박해에도 교회 성장중"

ⓒSina Drakhshani/ Unsplash.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이란 교회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을 기고한 라나 실크(Lana Silk)는 이란의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트랜스폼이란'(Transform Iran) 미국 지부의 CEO이다. 실크는 이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교육을 받았다. 다음은 칼럼의 전문.

교회 탄생 2000주년이 다가오면서 대사명을 위한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이자, 내 마음과 삶의 소명에 있어 너무 중요한 이란 교회에 주목했다. 나는 이란에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 할아버지는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1세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개종한 후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은 집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란에서 놀라운 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늘날 이란 교회의 초석을 닦았다. 사실, 그 집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집은 인파로 가득 찼고, 밖에 사람들이 서서 창문을 통해 간절히 메시지를 듣고자 했다. 결국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야 할 정도로 성장했다.

1979년 현재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극도로 통제되고 억압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란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다. 사실, 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매우 닮은 수많은 장면을 목격했다(사도행전 2:42-47).

초대교회가 극심한 반대와 위험에 직면했듯이, 이란의 성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 연결되어, 이 모든 길이 이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

기적: 예수님을 만난 무슬림들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 수백 명에 불과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대변혁은 극도로 억압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 정권의 국민을 향한 거짓된 이야기들에 반대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이란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 개종자들은 한때 생명처럼 여기며 받아들인 어둠의 실체에 눈을 뜨고,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사실, 예수님은 종종 무슬림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인물이다. 많은 무슬림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평생 오해해 왔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간증은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기적적인 계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무슬림 신앙에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며, 종종 초자연적인 경험을 동반한다. 이런 순간에 무슬림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실제에 압도당하며, 처음으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서방 세계와 달리, 이란에서는 신앙에 미온적일 수가 거의 없다. 복음의 빛은 가장 어두운 나라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예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 이전에는 완고했던 무슬림들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면, 그들은 새로운 신앙 때문에 투옥, 폭력, 죽음 등의 사회적 배척과 핍박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고 기쁨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전도: 실질적인 봉사와 철저한 보살핌

이란에서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던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실제적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이란에서 사회적, 종교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병원들은 총상이나 시위 참여로 비롯된 듯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하면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는 경고를 받았다. 따라서 이란인들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거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게 피난처, 보살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모국어로 이란인들의 마음에 말하기: 성경 번역과 디지털 교회

이란인들이 사랑을 경험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문화와 언어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나라 전역에서 39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페르시아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어가 비공식으로 간주된다. 각 언어는 전문적인 어휘와 뉘앙스가 있어 이를 보존하는 것은 이란인들에게 큰 가치가 있다. 성경 번역이 처음으로 이러한 모국어로 번역되어 문서나 오디오 형태로 배포되면서, 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종종 모여,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

이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위성 신호를 통해서다. 이란 사람들은 정부가 거짓 정보로 그들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잘 알고 있기에,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서버와 위성파를 통해 접속하고 정보를 찾는다. 이러한 서버를 활용하여 디지털 교회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란의 성장하는 교회에 혁명적이었다.

압도적인 결과: 유기적 교회의 성장

의도적인 교회 개척이 가끔 발생하지만 여전히 극히 드물다. 보통 이란의 교회들은 매우 유기적인 성장을 통해 생겨난다.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종종 기적적으로 중독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유되며,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결혼 생활이 회복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기적을 보게 되고, 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시작점에서 이란인들은 함께 모여 토론, 기도, 예배, 성경 읽기 등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정의가 아닐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다가갔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은 이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돌아오기까지 정결해지고 완전해기를 기다리시기보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신다. 김유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9:30
Youth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학생 性 정체성 부모에 통지 금지법"에 분노한 머스크, 텍사스로 이전

뉴럴링크 프로젝트의 의의와 전망을 소개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인 엑스(X·구 트위터)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을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이 "더는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머스크는 16일 자신의 엑스에 게시한 글에서 "이 법과 그 이전에 제정된 많은 법들이 가족과 기업을 공격하고 있어, 스페이스X는 이제 캘리포니아 호손에서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본사를 옮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머스크는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의회 법안 1995호(AB 1955) 승인을 우려하는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 이 게시물은 "그럼 이제 주정부가 부모라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16일 머스크는 "나는 약 1년 전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러한 성격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후속 게시물에서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인 엑스의 본사도 텍사스로 옮겨 오스틴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와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공공 안전을 우려하며 "건물에 출입할 때조차도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해 다녀야 하는 것에 지쳤다"고 토로했다. 의회 법안 1955호는 지난달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29대 8로, 하원에서는 61 대 16으로 승인됐다. 두 투표 모두 정당 노선에 따라 나뉘었으며, 법안에 대한 모든 찬성은 민주당, 모든 반대는 공화당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주립 특수학교(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교직원과 계약자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단,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비난하며, "LGBTQ+ 청소년과 그 가족이 신뢰를 쌓고 준비가 됐을 때 이러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빼앗는다"고 경고한다. 이 법안은 학생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을 변경하려 할 때, 학교 관계자가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지역 학군의 정책에 대응해 제정됐다.

그중 치노밸리통합교육구는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교육구의 학교이사회 회장이자 기독교인 어머니인 소냐 쇼는 "누구도 아웃팅(본인의 동의 없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는 행위)을 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옹호했다.

쇼는 지난 6월 공개된 영상에서 "학생이 다른 성별의 이름으로 불리거나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할 경우, 이제 우리는 부모에게 알릴 것"이라며 "자녀가 커밍아웃을 할 경우 부모는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16일, 치노밸리통합교육구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의회법안 1995호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새 법안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존하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며 "부모는 연방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 기록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美 노스캐롤라이나 1,003개 교회가 지역봉사 나선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소 1,003개 교회가 주 전역의 봉사 프로젝트인 '서브NC'(ServeNC)에 함께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서브NC 프로젝트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교인들이 지역사회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행사로, 대부분 노스캐롤라이나주침례교대회(Baptist State Convention of North Carolina)에 소속된 교회들이 지원했다.

이 대회의 전무이사 겸 재무 담당자인 토드 언진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 전체를 섬긴다고 전했다.

언진커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줄 방법을 찾고자 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선교한다'는 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며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침례교인을 생각할 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서브NC 프로젝트는 식료품 저장과 무료 벼룩시장에서부터 휠체어 경사로 설치, 신학기 물품 배급까지 다양하다. 각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특정 필요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교회들은 현재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새로운 활동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전체가 함께 봉사하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약 3만여 명의 침례교인들이 주 전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교회들이 이벤트 주최자에게 아이디어를 요청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영감을 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언진커는 이번 행사가 더 중요한 행사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송되어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가르치셨다"며 "그래서 우리는 '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페이엇빌 소재의 애란 레이크 침례교회(Arran Lake Baptist Church)의 앤드루 클락 목사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며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美 성서공회 "성경 읽는 미국인 66%, 시민 참여 중요하다 생각"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미국인들보다 시민 참여에 더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서협회는 최근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성서 현황 2024' 보고서의 네번째 챕터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지난 1월 4일에서 23일 사이 수집된 미국 성인 2천5백6명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며 오차 범위는 2.73%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민적 책임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과 관련된 특성과 신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질문을 받았다.

'시민 및 정부 문제에 대한 인식 유지'를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수치는 '성경 참여' 응답자 중에서 66%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성경 참여 응답자를 성경 참여 척도에서 100점 이상을 받은 응답자로 정의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삶에서 '성경 사용 빈도와 성경 메시지의 영향과 중심성'을 조사하는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이동 가능 중도층'(성경 참여 척도에서 70~99점 사이 점수를 받은 응답자)에 속하는 응답자 중 약 51%은 '시민 및 정부 문제에 대한 인식 유지'를 중시하는 반면, '성경 비참여 계층' 중 52%가 같은 답을 했다. 성경 참여응답자의 다수(48%)는 '시민 및 정부 정책 옹호'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미국인 전체 응답자의 37%도 같은 답을 했다. '이동 가능 중도층'의 34%와 성경 비참여 그룹은 35%만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성경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의 42%는 '정부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체 응답자의 16%, '이동 가능 중도층'의 15%, 성경 비참여자 중 8%가 같은 답을 했다. 보고서는 성경 참여 응답자는 "인식, 옹호, 복종 등 모든 측면에서 시민적 책임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 가능 중도층'과 '성경 비참여자'들의 인식과 옹호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성경 참여자'는 분명히 시민권의 이러한 측면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이 로마서 13장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구절은 통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논의한다. 또한, 성경 참여 미국인들은 '친사회적'으로 분류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또는 "매우 강력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성경을 따르는 응답자의 55%는 "타인종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반면,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렇게 믿는 사람이 33%, 변동이 심한 중도파의 경우 31%에 불과했다.

성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40%) 중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수감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강력히" 또는 "매우 강력히" 동의했으며, 성경 비참여자(19%)와 이동 가능 중도층(18%)보다 더 높았다. 성경 참여자들 중 대부분(53%)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강력히" 또는 "매우 강력히" 동의했으며, 성경 비참여자들 중 37%와 이동 가능 중도층 가운데 29%도 이에 동의했다. 세 그룹 간 차이는 '타종교인'과 친구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덜 두드러졌다. 성경 참여자(46%)와 성경 비참여자(41%)의 비슷한 비율이 타종교인과 우정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동 중간 계층의 31%도 마찬가지다.

이미경 기자

댈러스 제일침례교회서 대형화재 발생 인명 피해는 없어

댈러스제일침례교회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있다. ⓒ트위터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한 텍사스주 댈러스제일침례교회(Dallas First Baptist Church)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지붕을 비롯한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산 하신토 스트리트에 위치한 제일침례교회에서 4등급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NBC DFW에 따르면, 소방대 및 구조대원들은 오후 6시 5분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오후 6시 20분에 두 번째 경보가 요청되었다. 소방대원들은 토요일 아침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댈러스 소방 구조대에 따르면 교회의 부속 예배당이 화재 피해로 일부 붕괴되었다.

댈러스제일침례교회는 19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역사적인 성소의 화재를 진압해 준 구급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들은 아직 작업 중이지만 주요 화재는 진압되었다. 이번 주일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예배당은 1890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로, 약 12년 전에 새로운 예배 센터로 이전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교회의 본당으로 사용되었다. 댈러스제일침례교회는 폭스뉴스 기고자이자, 전국 수백 개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스웨이투빅토리'(Pathway to Victory)의 진행자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제프리스 목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그는 "역사적 성소에서 화재를 겪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드린다. 그분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주권자이시다"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롬 8:28)"고 글을 남겼다.

제프리스는 폭스 4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6살 때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21살 때 목사 안수를 받는 등 많은 추억이 깃든 장소라고 말했다. 교회는 화재 발생 직전에 예배당에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 학교를 막 마친 상태였다.

제프리스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회가 벽돌과 모르타르가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뎌낼 것이다. 댈러스제일침례교회도 견딜 것이다.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국의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댈러스컨벤션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오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강훈 기자의 교회 탐방

나성 생명의 빛 교회

나성생명의빛교회(이창희목사)는 작지만 힘찬 공동체다. 담임 목사인 이창희목사와 사모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 목사는 교회 운영에 대한 많은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집중한다. 이 목사는 강단권도 고집하지 않는다. 기회만 되면 좋은 설교자를 강사로 초청한다.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사의 책무요 사명이라고 믿고 실천한다.

나성생명의빛교회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찬양사역자 출신인 이창희목사는 찬양의 선곡과 배열도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 찬양으로 성도들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생명의빛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이 조화롭다. 찬양과 예물을 드리고 간단한 광고 후에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고 폐회한다. 그래서 예배가 군더더기 없이 짧고 단순하다.

이창희 목사의 설교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이 목사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말씀의 구체적 적용을 유도한다. 설교에 집중하도록 청중들과 대화하며 수시로 질문을 던진다. 상식과 뉴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화롭게 인용하며 차분하게 성도들을 설득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이창희 목사는 비교적 늦게 신학공부를 했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아쉬움도 있지만, 평신도 생활의 애환과 평신도의 마음을 잘 아는 목자가 된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 목사는 지금도 평일에는 일하고 주일에 목회한다. 주간에 일한다고 목회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영혼을 섬기는 목사의 사명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친다.

나성생명의빛교회 성도들은 전심으로 예배드린다. 모든 성도가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듣는다.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나름대로 경륜이 있지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한다.

교회 예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앞에 홀로 예배하듯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 무료하거나 교회 출석을 쉬는 사람이나 바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교회다. 강훈 기자

이창희 목사(나성생명의빛교회 담임)

사막인 내게 핀 꽃, 김현진 작가 전시회

7월 26일(금)~8월 3일(토)
이수갤러리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인 김현진 목사는 15년간 촬영해 온 사막과 꽃사진을 모아 27일(금)부터 8월 3일(토)까지 이수갤러리에서 "사막인 내게 핀 꽃"이라는 주제로 개인 사진전시회를 진행한다.

오픈 리셉션 행사는 7월 27일(토)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죽음을 의미하던 사막이 생명과 꽃으로 가득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김현진 작가는 사막을 주제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작가는 2008년 부터 매년 한 두번씩 데스벨리 사막에 나가서 죽음을 만났다. 특히 "첫째 아들이 난치성 뇌전증으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절망적인 마음을 달래주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절규하고 눈물 흘리고 노래하고 위로를 받았다"며 "사막은 나에게 더 이상 죽음의 의미가 아닌 생명의 의미가 되었다. 죽음의 절망 속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사막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진 작가는 LA임마누엘선교교회(미주성결교단)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로 2006년 미국에 건너와 엘에이 지역에서 패션사진, 웨딩사진, 기독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진관련업종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김민선 기자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jkim-photo
이수갤러리: 4012 W. Olympic Blvd., LA, CA 90019 (오픈: 오전 11시~오후 7시)
문의: 213-663-2568

ⓒ김현진 작가

김현진 목사의 사진전시회가 7월 26일(금)부터 8월 3일(토) 까지 이수갤러리에서 열린다. 오픈 리셉션 행사는 7월 27일(토) 오후 4시. ⓒ기독일보

중고생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 설교보다 '이것'

기독 청소년들이 예배나 교회 활동에서 바라는 것은 '친구와의 교제'와 '찬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교회에 애착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은혜로운 설교보다 친구 한두 명 혹은 즐거운 '코이노니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신앙의식과 예배, 교제 등 전반적 교회 활동에 대해 조사한 '기독 청소년의 신앙의식'을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안산제일교회, 한국교회연구원(예장 통합)의 자료 등도 참고했다.

기독 청소년들이 하루 중 신앙생활을 하는 비중은 '5분 이내' 21%, '5~10분 이내' 15% 순이었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30%에 달했다. 이 외에 10~30분 이내 12%, 30분~1시간 이내 11%였으며, 1시간 이상 한다는 비율은 11%로 2021년도(7%)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친구/선후배와의 교제(30%)', '찬양(2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설교(14%)', '기도(11%)' 등의 순이었다. 설교와 기도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제, 찬양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목데연은 "기독 청소년이 기대하는 것이 예배 요소보다 '친구와의 교제'라는 점은 교회가 충족해 주기 어려운 재미를 채워줄 수 있는 열쇠"라며 "교회는 이러한 교회 친화적인 학생들이 중심인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친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서만큼 친한 친구 한두 명만 교회에 존재한다면, 그 학생은 교회에 애착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권면했다.

송경호 기자

백종근 칼럼

'하위렴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 (2)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렴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싣는다.

제 2 장 선교사가 되기까지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다

고향에서 초중고를 마친 하위렴은 1883년 레바논에서 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소재한 센트랄 대학Central College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 당시 루이빌에 주립대학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좀 더 경건한 학풍의 기독교 사립대학을 선택했다. 1871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버지니아의 햄던-시드니 대학Hamden-Sydney College,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비슨 대학Davidson College과 함께 남장로교 교단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한창 이름을 떨치던 대학이었다.

그가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하려 했던 것은 아마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예비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위렴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체질적으로 섬약했던 탓에 아버지가 바라던 목사 대신 의사를 꿈꾸고, 센트랄 대학을 졸업하던 그 이듬해 1889년 루이빌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루이빌 의대는 훗날 남장로교 의료선교사로 사역했던 포사이드Wylie H. Forsythe와 오긍선이 공부한 학교이기도 했다.

대학가를 휩쓸었던 학생자원운동(SVM)

하위렴이 대학을 입학하던 당시만 해도 대각성운동의 여파가 아직 가시기 전이어서 미국 사회가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고무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886년 여름,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열린 대학생 여름 수양회에서 장로교 목사 피어선Arthur T. Pierson과 무디Dwight L. Moody가 제시한 '세계선교에 대한 방향과 비전'은 참석한 대학생들을 열광시키고도 남았다.

무엇보다도 이 여름 수양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학생이 세계선교에 헌신하기로 자원하는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하면서 '세계선교학생자원운동'(SVM)을 단체로서 출범시켰다. 2년 뒤인 1888년 코넬대 출신 존 모트John R. Mott가 의장 겸 실행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선교학생자원운동'(SVM)은 근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학생자원 운동의 열기가 전 미국의 대학가를 휩쓸면서 학교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크고 작은 각종 활동을 펼쳤는데 당시 졸업을 앞두고 있던 하위렴의 관심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했다.

의과대학을 자퇴하고 신학교로

하위렴은 이미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남북 상잔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남북전쟁 후 대부분의 남부의 젊은이들이 가졌던 갈등과 고뇌, 그것이 꼭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 말고도 노예제 속에서 살았던 남부인의 가치관과 신앙의 괴리 사이에서 그는 학창 시절 내내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위렴은 때마침 대학가에 불어닥친 학생자원운동(SVM)을 만났다. 헤매던 방황의 터널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바람을 뒤늦게 기억해내고,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았다. 그는 거의 과정을 마쳐 가던 의과대학을 아무런 미련이 없이 자퇴하고, 이듬해인 1892년 다시 신학교로 그의 진로를 바꾸게 된다.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

버지니아 리치몬드Richmond, VA에 소재한 유니언 신학교는 당시 콜롬비아 신학교와 더불어 남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교로 원래는 햄던-시드니 대학의 신학부가 떨어져 나온 유서가 깊은 학교였다. 하위렴이 유니언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해(1892),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전킨William M. Junkin과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1891년 테네시 내쉬빌에서 열린 '전국신학생연합선교대회'에 강사로 왔던 북장로교 조선 선교사 언더우드와 조선인 윤치호가 조선 선교의 시급함을 호소할 때 큰 감동을 받고, 그길로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조선 선교를 지원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조선 선교사로 선발이 되어 파송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너무도 생소했던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커다란 동기부여를 했을뿐더러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채 침체를 맞은 교단에도 새로운 출구를 제시함으로써 큰 도전을 주고 있었다.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던 1894년 가을, 하위렴은 트랜실바니아Transylvania 노회에서 안수를 받자마자 곧바로 그는 켄터키주 메이슨 카운티에 소재한 메이스 릭Maysville 교회의 설교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는 학창 시절 불태웠던 해외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다. 그리고 2년 뒤인 1896년 마침내 하위렴은 켄터키에서의 짧은 목회를 접고, 은둔의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지원했다. 그리고 앞서 떠났던 7인의 개척자의 뒤를 따라 단신으로 조선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개척선교사들의 내한 여정

하위렴이 조선에 파송되기 이전에 먼저 내한했던 개척선교사들의 초기 정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하위렴의 파송 행보와 연결된 초기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소개하기로 한다.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조선 선교를 결정하고 7명의 개척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하위렴이 내한하기 4년 전 1892년 2월이었다. 그들은 전킨 내외, 레이놀즈 내외,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 남매와 데이비스 양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7명의 선교사는 최종적으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함께 만났다.

세인트루이스는 그 당시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마더 로드Mother Road로 불리던 총연장 2,500마일의 국도 66번이 지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켄터키에서도 서부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일행은 테이트 남매의 모 교회인 센트럴 장로교회Central Presbyterian Church와 에비뉴 장로교회Avenue Presbyterian Church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장도壯途에 올랐다.

선교사 일행은 조선으로 귀국하는 주미공사 통역관이었던 이채연의 부인을 우연히 만나 합류하게 되었는데 마침 미혼이던 데이비스 양이 이채연의 부인과 룸메이트가 되면서 두 사람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에 이르는 태평양의 뱃길을 항해하는 내내, 일행은 그녀로부터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공부하며 보냈기 때문에 미지의 나라 조선으로 가는 멀고 먼 뱃길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녀와는 달리 전킨 부인과 레이놀즈 부인은 임신한 상태여서 2주간의 항해 내내 파도에 시달리느라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심한 뱃멀미로 시달렸다. 요코하마 항구에 당도할 즈음 이 두 사람은 거의 탈진상태였기 때문에 일행은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데이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요코하마에서 당분간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

일단 데이비스만 이채연의 부인을 대동하고 먼저 조선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때마침 요코하마에서 조선에 입국하려는 감리교 선교사 일행 이 있어 그들과 함께 고베를 거쳐 제물포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892년 10월 17일 제물포에 감격의 첫발을 내디딘 데이비스는 남장로교 최초의 내한 선교사가 된다.

스크랜튼W. B. Scranton 선교사 부부, 올링거Rev. F. Ohlinger 목사, 마펫Samuel A. Moffet 선교사가 마중을 나와 환영해 주었다. 일행은 조계지 내에 이태(怡泰) 호텔이라 불리던 중국인이 경영하는 외국인 숙소에다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물때를 맞추어 다시 작은 범선을 타고 한강을 10시간 정도 거슬러 마포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서둘러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남자들은 도성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이미 성문이 굳게 잠겨 있었으나 가마꾼들이 아주 익숙하게 성을 타고 올라가 성 안쪽의 높은 둔대屯垈 위에 서서 마펫 선교사가 준비해 둔 밧줄을 성벽 아래로 늘어뜨리자, 성 밖의 일행들은 밧줄을 붙잡고 성벽을 기어올라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성안에 들어온 일행은 이채연 부인의 친절한 도움과 마펫 선교사의 안내로 미 공사관의 부속 의사였던 알렌의 숙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요코하마에 남아있던 나머지 일행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나서였다. 그들이 배에서 내릴 때는 데이비스와 달리 마펫을 비롯한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조선 선교의 교두보 '딕시'(Dixie)

내한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곧바로 서소문 근처 전 독일 공사의 저택을 알렌으로부터 1,500불에 매입하고 전킨과 레이놀드 내외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해 선교부 설치를 위한 교두보로 삼았는데 주변 선교사들은 이곳을 딕시Dixie라 불렀다.

서소문 숙소에 7인 모두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는 테이트 남매가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했으며 데이비스 양 역시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북장로교 독신 여선교사 숙소에서 도티Susan A. Doty양과 함께 머물렀다. 무엇보다 조선의 사정에 전혀 어두웠던 선교사들은 초기 3년여 동안은 의사소통을 위한 조선어 학습에만 매달려야 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내한하자 협력의 필요를 느낀 북장로교 선교부에서는 공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남장로교 내한 선교부에서는 곧바로 그 제안에 합의하면서 이듬해인 1893년 1월 공의회를 설치했다. 공의회 첫날 회의에서 레이놀즈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노회가 조직될 때까지는 공의회가 개교회를 전권으로 치리할 수 있도록 결의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선교구역을 나누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가 맡기로 했다.

남, 북장로교의 선교구역이 정해지고, 선교방침의 윤곽이 드러나자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전라감영이 있는 호남의 수부首府 전주와, 전주를 서해로 이어주는 해상통로 군산에 지부 설치를 결정하고 레이놀드와 드루를 군산으로, 테이트 남매는 전주로 탐사 임무를 주어 내려보냈다.

선교사들이 전주와 군산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동학농민항쟁(1894)이 발발했다. 급기야 농민군에 의해 전주성이 점령되자 미국공사관에서는 이 지역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도록 지시를 내렸다. 189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남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도 긴급하게 선교사들의 철수를 결정했다.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 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수맥파 유해전자파 100% 차단
ISO 9001 인증
경북 영양군 특화산업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직장인 및 고령자 분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타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

김인수 목사의 오늘의 묵상

기독교의 박해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히브리서 11:36-37)

기독교는 시작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최초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박해였습니다. 그 후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는데,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고후 11:23-). 바울 사도는 말년에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목 베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목 베임을 당했으며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고, 다른 사도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합법 종교로 선언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형에, 굶주린 맹수의 먹이로, 끓는 기름 가마솥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각오 없이는 받아 드릴 수 없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313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도들이 박해받는 일은 없었지만, 중세 천년 동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순교당한 성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교황에게 순복(順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異端)으로 정죄되어 화형(火刑)을 당하였습니다.

영국과 불란서 사이의 100년 전쟁 중인 1428년, 모국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용감히 일어나 영국군을 물리치고, 오를레앙 성을 구한 16살의 잔 다르크(Jeanne d'Arc)를 가톨릭교회는 마녀(魔女)라는 누명을 씌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대학교 총장 얀 후스(Jan Hus)신부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1415년 콘스탄스 회의에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불란서 가톨릭교도들이, 파리에서 1572년 8월, 성 바르텔레미(Saint Barthelemy) 축일 밤에 불란서 개신교인 위그노(Huguenot) 약 3만 7천 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 미사를 드렸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교회 개혁 이후, 가톨릭교회는 개신교가 이단이라며, 전쟁을 선포하여 약 150여 년 동안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계속되다, 1648년 독일 Westphalia에서 조약을 맺고 종전이 된 후 비로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도 박해는 그렇다 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추방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2024)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 남자 성도 다섯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마지막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구덩이에 다섯 성도를 몰아넣고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2024.7) 미국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인도의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28개 주(州) 중에 10개 주가 신앙 개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체포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에서 2시간 만 북으로 올라가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만 드려도 체포되어 처형을 당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중노동을 하다 병으로, 영양실조로, 과로로 순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본디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추악한 가인의 후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며, 죽이도록 교사(敎唆:남을 꼬드겨 못된 짓을 하게 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사탄 마귀의 횡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박해 받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같이 박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샬롬.

진유철 칼럼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바벨론 성은 어떤 외적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철벽 성이었습니다. 4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성벽을 가졌고, 성 밖으로는 깊은 도랑을 파서 적들이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메대 바사 연합군이 곧 침공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이 들리는데도 벨사살 왕은 귀족 천 명과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정점에 있던 바벨론이라도 한 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던 느브갓네살 왕은 44년 동안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손자 대인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 말세라고 말하는 오늘의 현실과 오버랩 됩니다. 지금 누리는 풍요와 성공이 내 힘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직장이나 집을 교회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학교나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조차 빠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맛 집을 탐방하는 먹방에, 운동과 여행에, 그리고 재미와 놀이에 점령당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지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 세계가 있기에 상은 죽어서 받고 벌은 살아서 받는 게 낫습니다. 죽어서 받는 상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받는 벌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짊어지고 영원히 살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계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다음 세계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상과 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하나님 일을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이 하나의 종교 상품처럼 포장되어서 팔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말세의 세상은 빨라지고 많은 정보가 인풋 되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데,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교회는 단기선교를 갈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식당과 주방에서, 주차장과 로비에서, 교육국의 현장에서, 찬양팀과 성가대로, 방송실과 사무실에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다음 세계를 예비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넘치는 사랑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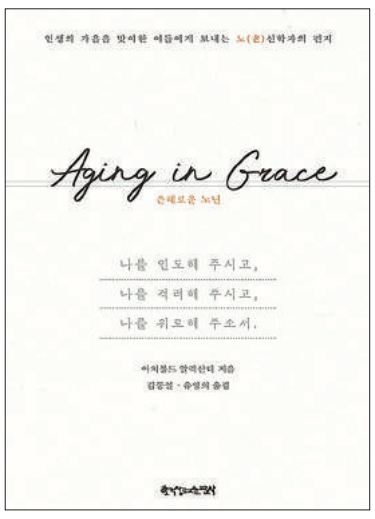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Seoul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귀하고 아름답고 강력하다

인생의 가을 맞이한 이들에게 보내는 老신학자의 편지



Aging in Grace:
은혜로운 노년

아치볼드 알렉산더 | 김동철 · 유영희 역 | 한국장로교출판사 | 96쪽 | 7,000원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죽음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한 매듭이며 영원한 삶으로의 출발점이다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노년의 친구들을 위해 남긴 이 편지글은 200년에 가까운 세월의 간극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책은 실제적인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노년은 물론, 봄과 여름의 시기를 꽃피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저출산 초고령 시대를 살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지혜로운 마음, 곧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는 여간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즐기고 있는 자들에게, 가을과 겨울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계절을 주관하셔서 정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어김없이 노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미처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이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당혹스러워한다. 젊은 목사로서 성경을 근거로 노(老)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안다 해도, 인생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인도하는 것보다는 이미 인생의 계절을 모두 다 경험한 목사가 같은 노년의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여기 19세기를 대표하는 아치볼드 알렉산더 목사(Archibald Alexander)가 바로 그 적임자다. 1772년 태어나 1851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버지니아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교회에서 목회하고 햄든-시드니 대학교 총장,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가르쳤던 그는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Aging in Grace: 은혜로운 노년》이라는 책을 통하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책은 70대 초반에 알렉산더 목사가 쓴 《종교적인 체험에 대한 고찰(Thoughts on Religious Experience)》의 부록으로 실린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총 다섯 편의 편지로 구성돼 있고, 마지막 장인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는 알렉산더 목사의 장남인 제임스가 아버지 전기를 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먼저 아치볼드 목사는 노년을 맞이한 성도를 위로한다. 사별의 아픈 상처, 사랑하던 친구들, 가족들이 떠나갈 때의 고통, 힘과 지혜를 점점 잃어버릴 때 느끼는 당혹감을 공감한다. 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던 이들이 경로에서 이탈하여 떠나버린 사실에 슬픔을 느끼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과 몸에 나타나는 것에 실망하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절에 대하여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질 때, "나의 친구여, 부디 우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마음을 북돋아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격려한다(17쪽).

둘째, 저자는 노인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경고한다. 자신도 노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노성도로서 "노인들이 빠지기 쉬운 과오를 주시하며 경계하라"고 권면한다.

까다롭고 퉁명스러운 태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 무기력하고 열정 없는 신앙이 바로 노인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다. 또 탐욕, 더 가지려는 마음과 가진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또 앞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얻게 되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마십시오(33쪽)".

아치볼드 목사는 죄를 죽이는 싸움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멈추지 말아야 할 싸움이고, 노년에 특별히 기승을 부리는(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지켜본 바에 따른) 죄를 경계하라고 촉구한다. 셋째, 아치볼드 목사는 노인들에게 특별한 권고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라고. 힘이 줄어들어도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고, 젊은 사람처럼은 못해도 진실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바울, 성경을 펴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로 알려져 있는 '논쟁 중인 두 노인'. ⓒ홍성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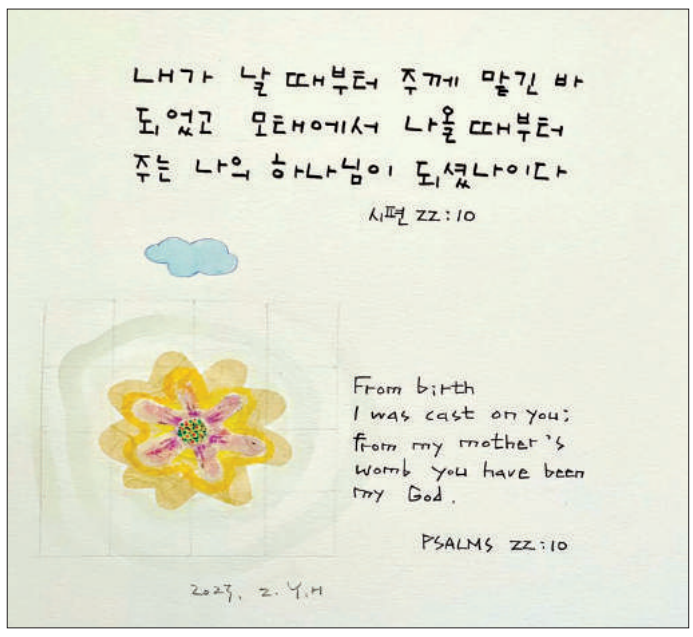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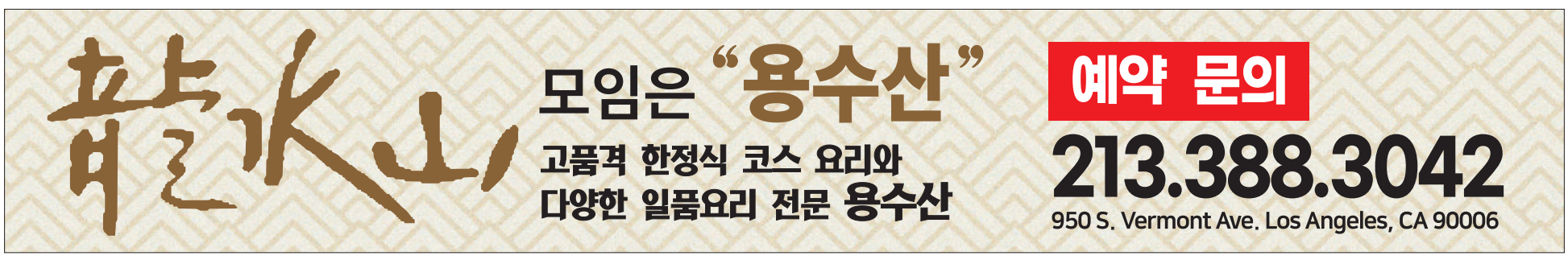
특별히 저자는 노인이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으로 '기도'를 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은 두 노인을(시므온·안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구하는 것은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한 성도가 특별히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노년을 맞이한 성도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확신을 더한다.

날로 후패하여지는 몸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의 쏘는 것은 사라졌고, 다만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봄과 여름을 맞이한 이들에게도 미리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책은 사랑하는 노성도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책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 (2)

〈돌풍〉 속 대통령 역할 설경구의 잘못된 성경 해석

한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불릴 만큼 출중한 연출과 서사를 선보이는 정치 느와르 〈돌풍〉.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일당 부패 덮으려 회유할 때 언급 군중들 죄 드러내려는 말씀 아닌 다시 죄 짓지 말라며 주신 메시지

◈정치적인 선(善): 성경의 가르침을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

미국 인기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정치인들이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한다. 이는 일단 극의 배경이 명목상이나마 기독교 국가인 미국 정가이기도 하고,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케빈 스페이시 분)가 기독교 신자 인구 비중이 높은 미국 동남부 바이블벨트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속적 탐욕이 가득한 정치인 언더우드의 성경 및 기독교 관련 발언은 대개 다른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위선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혹 그가 기독교와 관련해 본심을 말할 때, 언더우드는 신앙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해석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작중(시즌 1, 에피소드 12) 언더우드는 독백을 통해 "(사관학교에서) 교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믿냐고 묻더군.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냐고 물었어.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 언더우드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과 천국이 전혀 필요없고, 인간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신념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거의 대다수 정치인들이 갖는 믿음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권력이 정치인 외의 사람들에게 나뉘는 것을 싫어한다. 종교는 오랜 세월 정치 권력의 협력자와 동반자로 여겨졌지만, 근대 이후 세속사회에서는 정치인들과 권력을 분점하는 경쟁 상대로 인식된다. 권력욕에 삶 전체를 내던진 언더우드 입장에서 하나님과 종교가 달갑게 여겨질 리 없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인간의 죄성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형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탓한다. 한국의 정치 드라마 〈돌풍〉에 등장하는 주인공 박동호(설경구 분) 역시 언더우드와 유사하게 자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한다. 박동호의 성경 및 기독교 관련 발언 가운데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의 장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누명을 쓴 국무총리 박동호는 그 누명을 없애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하는 부패한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 분)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하며 성경의 일화를 인용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 한마디에 다들 돌아갔지. 왜 들고 있던 돌을 죄인에게 안 던졌을까?"

이에 정수진은 "남의 죄를 묻는 자는 자신의 죄도 드러날 각오를 해야 되니까"라고 답한다. 박동호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제안에 박동호는 정수진과 그 일당들이 자기들의 부패를 덮기 위해 박동호 자신을 회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간음한 여인의 일화를 언급한 것이다. 박동호와 정수진의 상황, 그리고 간음한 여인의 기사 사이에는 얼핏 들어보면 상황상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돌을 든 군중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은 군중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정수진 일당이 박동호를 끝까지 공격하지 않은 것도 박동호의 역공에 되려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가 드러날까봐서이다.

◈기독교적인 선(善): 정치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 복음의 지향점

그런데 간음한 여인에 관한 성경 기사의 핵심은 군중 또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으려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호와 정수진처럼 그 핵심 메시지를 빼놓고서 성경 기사를 인용하고 알레고리로 사용하는 행위는 소극적 차원의 성경 왜곡(반기독교적인 적극적 차원의 왜곡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원래 의도에 맞지 않게 인간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왜곡)이다.

두 번째 문제시되는 장면. 박동호가 대통령 장일준(김홍파 분)을 암살하는 것을 옆에서 도운 박동호의 비서 서정연(임세미 분)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자의 기도, 들어주실까요?"라고 박동호에게 묻는다. 이에 박동호는 "선한 자의 기도라도 들어주셨다면 이런 세상, 오늘 같은 일은 없었겠지"라고 답한다. 박동호의 대답은 신정론의 핵심 논제 중 하나인데,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선한 자'에 대한 정의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한 자'와 박동호가 생각하는 '선한 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경의 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인데 반해, 박동호가 말하는 선한 자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선한 자이다.

즉 박동호가 말하는 선한 자란 도덕적 행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반에 이익을 주는 자를 말한다. 성경의 선인(善人)은 공리주의적으로도 선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리주의적 선인은 기독교의 선인이 될 수 없다.

기독교의 선인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박동호는 이 조건을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자가 마치 기독교적으로도 선한 자인 것처럼 단정한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정의한 개념을 적절한지 않은 범주로 잘못 이항(移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간 이성의 힘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 계몽주의 시대를 거친 이후 인류는 인간이 고안해낸 정치 체제, 즉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해 왔다. 서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혜택을 본 이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고, 서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무자비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은 공산주의나 반서구 민족주의를 종교처럼 받들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인간 이성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본성과 인간이 고안한 정치 체제의 심각한 결함을 일깨워주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인류는 여전히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고안하고 채택한 어떠한 정치체제도 높은 수준의 공의와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 체제의 높은 이상을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돌풍〉에서 박동호가 성경 및 기독교의 가르침과 관련해 내놓는 의견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이상을 지고선으로 삼고 내놓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정치적 이상을 숭배하는 박동호의 성경 해석 방향은 그에 동조하는 한국사회 다수 시민들에게 분명 큰 호응을 얻을 만하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인들과 비기독교 세속사회 구성원들은 궁극적 믿음과 신뢰의 방향이 크게 다르다. 그러니 같은 성경 구절을 두고 그 의미해석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 역시 세속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따라 선하게 활용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속 권세의 궁극적 지향점이 기독교 신앙과 크게 다르다는 점 또한 잊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운다. 그리스도께서 단언하신 바와 같이, 주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속 사회가 제아무리 공리주의적으로 올바른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물론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정치적 이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인생을 내던진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신앙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그리고 이 월권행위는 원천적으로 신앙과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이상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삼는 성경해석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대표적이다. 두 신학 조류는 분명 학문적으로 훌륭한 체계를 갖췄지만 그 사상적 지향점이 원래의 기독교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복음과 정치 이념의 기괴한 혼합, 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반공과 자유를 외치는 이들, 민중과 해방을 외치는 이들, 아니면 교회를 정치질과 출세의 등용문으로 여기는 이들 모두 〈돌풍〉의 박동호와 마찬가지로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의 진의를 왜곡하는 우를 범한다. 정교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

마크 크리치 목사 "이 시대의 7가지 거짓 신들은…"

미국 크리스천액션리그(Christian Action League)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전무이사인 마크 H. 크리치(Mark H. Creech) 목사가 오늘날의 거짓 신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크리치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현대의 7가지 거짓 신들'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칼럼을 연재했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인본주의(Humanism)', '역사주의(Historicism)', '진화 과학(Evolutionary Science)'을 세 가지 신으로 꼽았다.

그는 네 번째로 '맘몬'(Mammon)을 언급하며 "현대 교회에서는 번영 복음, 즉 건강과 부의 재정적 성공을 강조하는 신앙 체계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신자가 재정적 성공을 거두고, 항상 육체적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시며, 믿음과 긍정적 선언, 특정 교회 사역에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그는 "이 교리의 문제점은 하늘에 자신의 보물을 쌓는 대신 돈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것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세상적 쾌락과 부, 안위를 더 중시한다"며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와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분은 관대함과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으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또한 마태복음 6:25-34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재물을 축적하다가 갑자기 죽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탐욕을 경고했다. 이 사람은 현세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영원 속으로 들어갔다"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며, 세상의 다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충족될 것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치는 다섯 번째로 '국가'(State)를 꼽았다. 그는 "오늘날의 신들 가운데 국가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함없는 충성을 명령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만연한 존재"라면서 "사람들은 흔히 도덕이 입법화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다. 입법은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법으로 통과된 모든 입법은 누군가의 가치 체계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 국가는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며 심지어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통제한다. 많은 면에서 국가는 오늘날의 신과 같은 존재이며, 전통적인 신과 견줄 만한 권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존재를 형성한다"며 "하나님께서 대중들이 국가라는 거짓 신을 믿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했다.

여섯 번째는 '피해의식'(Victimhood)이다. 크리치는 "현대 서구 문화에서 피해의식은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여, 말 그대로 대중들이 숭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 신이 되어가며, 고통과 억압의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이야기의 핵심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의식 문화가 "종교 공동체와마찬가지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연대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적 소속감과 상호 지원을 만든다"며 "더욱이 피해의식은 억압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정의하며, 용납될 수 없는 행동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는 종종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적 배척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액션리그 노스캐롤라이나 전무이사인 마크 H. 크리치. ⓒ크리스천액션리그

그리치는 "성경은 고통과 피해의식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며 "고통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삶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유와 변화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도록 부르신다"고 전했다. 일곱 번째로 그는 "검증(Validation)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 신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는 대신, 타인의 승인, 인정 및 긍정을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밝혔다.

그는 "돈과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 소셜 미디어를 향한 깊은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검증을 향한 만족할 수 없는 갈망과 갈증은 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크리치는 교회가 이탈하여 검증을 숭배한 사례로 나치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30년대 초, '게르만 기독교인(Deutsche Christen)'라는 운동이 개신교 교회 내에서 등장했다. 이 운동은 기독교를 나치 이념과 정책에 통합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독교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게르만 기독교인 운동과 나치 정권의 협력은 독일과 교회 모두에 재앙이었으며,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덕적, 영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7세기 초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구조물, 바레인서 발견돼

바레인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구조물 중 하나가 발견돼 7세기 초 이슬람이 널리 퍼지기 전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됐다.

이는 네스토리우스 교회라고도 알려진 동방 교회의 첫 번째 물리적 증거를 보여준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엑서터 대학과 바레인 문화유산청은 주교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4세기 중반에서 8세기 중반 사이 건립됐다고 확인됐다고 대학 측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 구조물은 사마히즈의 마을 묘지에 있는 흙더미 아래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현대 정착지의 중심지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고 CP는 전했다. 이 곳은 지역사회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버려질 때까지 점유됐다. 발굴을 공동으로 이끈 엑서터 대학교의 티머시 인솔 교수는 해당 구조물을 8개의 방이 있는 큰 건물로 묘사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난로가 있는 주방, 식당, 작업실로 추정되는 방, 3곳의 거주 공간이 있었다.

인솔 교수는 "우리는 누군가 진주 조개에 얼굴의 일부를 아스팔트로 그린 것을 보고 즐거웠다. 아마도 건물에 사는 아이를 위해 서였을 것"이라며 "이것은 바레인에서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대한 최초의 물리적 증거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일했고,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라고 했다. 석고 십자가와 키로, 석고에 긁힌 물고기 등 초기 기독교 상징과 유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주민들의 기독교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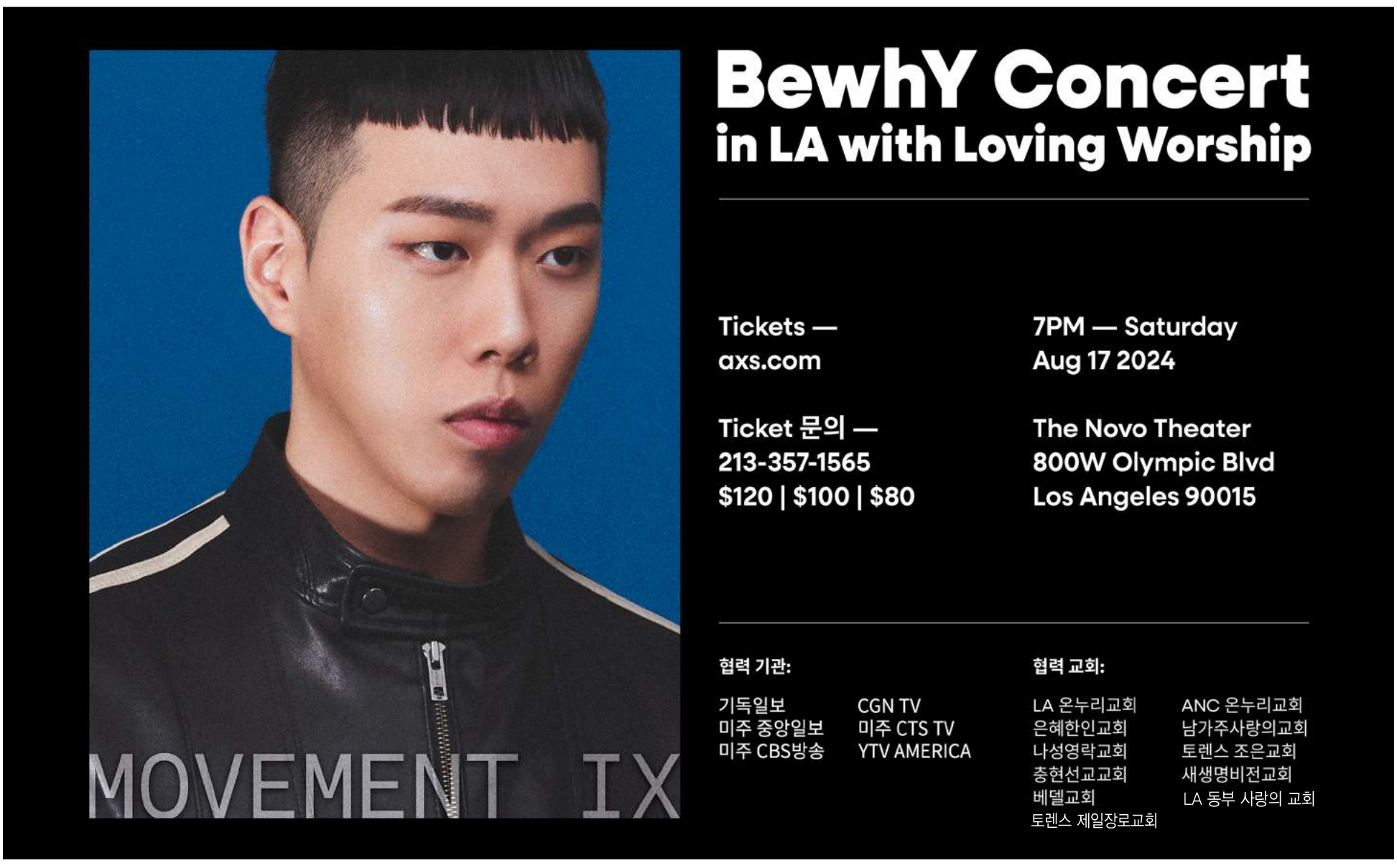
이번 발굴에는 또한 예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직물, 방추 고리, 구리 바늘이 포함되어 있어 이 유적지에서 직물을 생산했음을 시사한다. 발굴을 통해 사산 제국(Sasanian Empire)의 구리 동전 12개가 발견되어 경제적으로 번영한 공동체에 대한 증거가 추가됐다. 2019년 시작되어 2023년 끝난 이 유적지 발굴은 지역 전설에 의해 동기를 부여

(본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받았다. 데일리메일은 인솔 교수의 말을 인용해 "묘지의 파괴된 모스크/신사 아래 흙더미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다고 그들이 말했다"면서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결국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옳았고, 건물이 발견됐다"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2025년 개관할 예정인 박물관에서 해당 유적지 연구를 계속해 이번 발굴을 보존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Bangkok 2024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옵션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주관 | TMTC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

문의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